

어르신, 방문판매에 피해 주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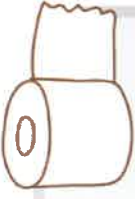
노인들을 울리는 악덕상술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노인계층이 증가하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업자의 악덕상술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쉽게 상대방의 호의를 받아들이고, 분쟁이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해 성행하고 있는 노인대상 악덕 상술의 유형과 주의사항입니다.

소비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 ☒ 무료관광이나 공짜 시은품 제공은 제품 판매가 목적인 상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 ☒ 설문조사·당첨을 빙자해 성명·주소 등을 알려달라고 하면 거절해야 합니다.
- ☒ 관공서·공공기관 직원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 ☒ '00에 특효', '효과없을 시 환불보장'과 같은 판매원의 설명을 너무 믿지 맙시다.
- ☒ 구입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에 확신이 서기 전에는 포장을 뜯지 않습니다.
- ☒ 방문판매원 또는 노상에서 구입한 물건을 해약할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약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합니다.
- ☒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1

‘화장지를 공짜로 줍니다’ (시은품 제공 상술)

주책가 등을 돌며 각종 생활필수품(라면, 화장지, 쓰레기봉투 등)을 무료로 준다면 사람들이 모은 후 건강식품 등을 판매함. 특히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정보가 부족한 노인을 대상으로 이틀, 주소를 알아내 무조건 집으로 제품을 배달하고 지로로 대금을 청구함

피해사례) 천00(67세) 할머니는 동네 아파트에서 보리쌀을 나눠준다는 방송을 듣고 나갔다. 트럭에서 홍삼엑기스 광고를 구경하던 중 먹어보고 선전해달라며 두 박스를 쥐 공짜인 줄 알고 받았으나 나중에 대금 납부 용지가 날아와 납부하지 않자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고 하였다



2

‘온천·관광 시켜드려요’ (무료 관광 상술)

온천이나 유명 관광지를 무료로 구경시켜 준다고 하면서 노인을 유혹함. 그리고 공장 견학을 핑계로 강의실에서 노인들을 모아 놓고 비싼 건강식품, 의약품 등을 강매함. 무료로 관광했다는 미안함과 강의실, 관광버스 등 밀폐된 공간에서 구입을 강요하기 때문에 쉽게 거절하지 못함

피해사례) 박00(69세) 할머니는 무료 온천관광을 시켜주겠다는 판매사원을 따라갔다가 홍보관에서 관절에 좋다는 말에 건강식품을 구입하였다. 계약서 시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금 납부 지로용지를 받고 보니 물품금액이 계약과 달랐다. 판매처에 항의하고 반품을 요구했으나 증거가 없으며 거절하였다.

3

‘무료로 초대합니다’ (강연회·공연 개최 상술)

일반 가정으로 무료 공연을 내세워 초대장을 발송하거나 놀이·오락제공 명목으로 일정 장소에 노인들을 모은 후 건강식품이나 의료용구 등 구입을 강요하며 참석자 명부를 만든다는 핑계로 이틀·주소를 확인한 후 제품을 나눠주고 나중에 대금을 청구하기도 함

피해사례) 김00(70세) 할머니는 우편으로 유명연예인의 무료 공연 초대장을 받고 웨딩홀에 방문하였다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오존살균기와 키토신을 구입함. 가족들이 구입을 반대하여 반품하고자 하였으나 판매처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초대장에 써 있는 주소지로 반품요구서를 보냈으나 한 달 뒤 대금 납부 지로용지가 발송됨



4

‘샘물을 보내드립니다’ (무료 샘물 제공 상술)

최근 휴대폰이나 전화로 경품 당첨이나 무료 샘물 제공을 빙자해 물품을 배송한 뒤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음. 공제에 약한 심리를 이용해 당첨되었다고 현혹한 후, 일방적으로 제품을 집으로 배달하고 대금을 청구함

피해사례) 강00(71세) 할머니는 00영농조합에서 회사 홍보차원에서 산수유 건강식품 샘물을 보내주겠다고 하여 이틀, 주소 등 개인적사항을 알려줌. 이를 뒤 제품이 우송되어 받아보니 샘물이 아닌 완제품과 함께 298,000원 지로용지가 있어 바로 사업지출에 반품을 요청하자 무조건 반품이 안된다며 전화를 끊어버림. 이후 연락해도 전화도 받지 않음